

복음주의와 자본주의

Evangelicalism and Capitalism

조상국

1. 서론
2. 억압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복음주의 좌파의 공격
3. 자본주의의 옹호 : 복음주의 우파의 입장
4.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자본주의 : 복음적 중도파의 입장
5. 결론



조상국,
안동교육대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현재 효성여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담당 실
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bstract

For recent twenty years, capitalism has stood as the preeminent social issue in Korea. University campuses have been the center of anti-capitalism while conservative evangelical churches have been the strong supporter of capitalism. However, recent events in Eastern Europe and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look like to give political and economical triumph to capitalism. But still many evangelicals are not satisfied with capitalism and are struggling to have correct views on capitalism.

These phenomena are not unique to Korea. Prior to Korean experiences, capitalism has been of considerable interest to American evangelicals and has caused serious debate over capit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recent evangelical debate over capitalism in the U.S.A and thu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apitalism among evangelicals in Korea.

According to Craig Gay (1991), the paper examines the position of evangelical lefts, rights and centrists in the U.S.A. Historically the debate

over capitalism among American protestants in general and evangelicals in particular began on the left. — that is, among those who identified capitalism as an economic system essentially at odds with christian theology and ethics.

The left assumes that in the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virtually all social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iny business elite and that the rest of society is manipulated to the advantage of elite. While the evangelical left links a great many of the worlds problems to the existence of capitalism, the evangelical right defends capitalism by insisting that capitalism offers the only real hope of solving these problems.

Finally, majority of evangelical authors seek to balance appreciation of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market has apparently left behind.

In conclusion, this debate helps to open our eyes to other evangelicals who have different positions on capitalism and to understand that this kind of debate is not a new but historically a continuous one since Marx.

1. 서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생의 한 혁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일상 경제 생활이 모두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관계에서 니이버에 의해 유형화된 바 있다. 즉, 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를 유형화 하였다¹⁾.

문화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를 악의 원천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는 기독교와 상충되는 제도라고 맹공을 가하고(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어떤 목회자들은 기독교란 곧 반공이며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제도라고 옹호하기도 한다(자본주의의 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장점은 인정하되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복음주의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다(자본주의의 변혁자 그리스도).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겨나는가? 이런 다양한 불일치 속에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배울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복음주의자들이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마르크스 이후로 부단히 계속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주의와 민중신학등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0년 이래 복음주의 좌파의 출현으로 자본주의 논쟁이 복음주의 내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범위를 좁혀 최근 미국에서의 복음주의 논쟁

1) 리처드 니이버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 기독교서회, 1958.

을 복음주의 좌파, 복음주의 우파, 그리고 복음주의 중도파로 분류해서 그들의 논쟁점들을 2절, 3절, 4절에서 각각 살펴 보고 5절에서 그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억압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음주의 좌파의 공격²⁾

미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논쟁은 특별히 “좌파(the left)”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좌파란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학 및 윤리와는 상충되는 경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다.³⁾ 이들은 다시 그룹별로 다양하게 서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면에서는 한 범주로 묶을 만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복음주의 좌파가 내리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란 전 지구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 실체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체제로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부분의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체제이다.”⁴⁾

2) 이 절은 Craig M. Gay,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Whom?* : The Recent Evangelical Debate Over Capitalis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91의 Chapter 2 Capitalism As Oppression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이 범주에 해당되는 여러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Jim Wallis 및 잡지 Sojourners와 The Other Side에 투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복음주의자들(Radical evangelicals), 세계적 경제발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Ronald Sider와 같은 진보적 복음주의자들, 복음적 해방신학(evangelical theology of liberation)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Andrew Kiri, Samuel Escobar, Rene Padilla 같은 사람들의 그룹 등이다.

4) 복음주의 좌파의 자본주의 이해는 복음주의 우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거의 대부분 비복음적 근원에서 부터 나온 것이다. Neo-Marxist의 분석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특별히 “New Left”의 다음과 같은 고전이 중요한 근원이다. C. Wright Mill의 *The White Collar*(1951), *The Power Elite*(1945), Herbert Marcuse, *One*

복음주의 좌파에 의한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3C로 요약될다고 볼 수 있다. 첫째가 탐욕(covetousness)이다. 탐욕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엔진이다.” “자본주의는 이기심에 의존해 있고 이기심을 부추긴다.” 자본주의는 “개인적인 축적에 기초한 정치경제이다.”

두번째의 비판주제는 집중(concentration)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소수 기업 엘리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왔다고 본다. 이들 좌파는 미국 기업 엘리트들이야말로 고용인들을 “좀 더 값싸게 착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하고 “거의 공황수준의 실업”에 이르게 하고, 쓸데없는 생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풍요라는 환상을 주면서 인플레이션과 침체의 기간을 자주 일어나게 하고, 기본적인 산업의 현대화는 무시하며, 귀중한 자원은 낭비하고 경제발전 과정은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의 비판 주제는 음모(conspiracy)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으로 음모를 성공적으로 꾸며나가는 경제력이 집중된 소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된다는 비판을 좌파는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경제체도가 아니라 금권정치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즉, 부유한 자와 백만장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⁵⁾

복음주의 좌파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자유” “성장” “기회”같은 용어는 단지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선전되어지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복음주의 좌파는 경제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그

Dimensconal Man(1964),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1950), Eric Fromm, *The Sane Society*(1955), Jack Newfield, *A Prophetic Minority*(1966), *ibid.*, p.23. 재인용.

5) Engence Toland, Thomas Fenton, and Lawrence McCulloch, “World Justice and Peace : A Radical Analysis for American Christians”, *The Other Side* 12 (January-February 1976) : 57. *ibid.* 재인용함.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옹호하고 있다. 즉, 좌파의 국내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재분배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국가(corporate state)에서는 규제장치만이 기업의 에너지를 사회적 선(social good)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대부분 심각한 문제의 해답은 사회적 지출의 증대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국가는 고용, 주택, 식량, 의약품 등과 같은 것을 복지제도(welfare system)를 확장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적으로 복음주의 좌파는 성경이 상당히 명시적으로 자본주의를 억압적인 정치 경제 체제라고 정죄한다고 보고 있다. 즉, 좌파의 주장은 첫째, 윤리적이면서 제안적인 것으로서 성경은 사적 축적(private accumulation)을 비난하고 부(wealth)라는 것은 반드시 가난한 자의 회생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며, 이것을 그들은 “구조적 불의”(injustice)라고 부른다.⁶⁾ 둘째는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에 의해 가난해지고 꺾박받게 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3. 자본주의의 옹호: 복음주의 우파의 입장⁷⁾

복음주의 좌파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자본주의와 연관지우는 반면, 복음주의 우파는 자본주의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희망을 제공

6) 이들은 부와 빈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본다. 인용되는 성경구절은 히브리인 종의 해방에 관한 모세법(출애굽기 21:2~6, 신명기 15:12~18), 안식년(출애굽기 23:10~11, 레위기 25:1~7), 부채의 탕감(신명기 15:1~11), 회년(레위기 25:8~17),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누가 6:20),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누가 6:24), 젊은 부자(마가 10:17~31, 마태 19:16~30, 누가 18:18~30) 등이다.

7) 이 절은 Gay, op.cit., Chapter 3 In Defence of Capitalism을 요약 정리한 것임. 복음

해 준다고 대응한다. 자본주의는 현대 인류에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시장경제는 현대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 대한 기초를 또한 제공해 왔다고 논증한다.

여기서 복음주의 우파란 자본주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을 총칭한다.⁸⁾

복음주의 우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란 시장을 위해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체제로서 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지극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 체제로 인해 세계는 대체로 훨씬 더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다.

앞절에서 지적되었듯이 복음주의 좌파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포괄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수의 기업 엘리트들이 대부분의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우파의 반박도 이에 상응해서 몇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로, 우파는 자본주의가 결코 포괄적인 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생활은 단순한 경제생활만이 아니며 자본주의란 경제적 관계를 제도화한 것인 반면에 다른 일차적인 사회제도(국가, 교회, 가족)와 연관을 지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우파는 자본주의의 이윤동기를 탐욕과 동등시하는 좌파의 비판은 인간의 이기심(selfishness)과 적법한 자리심(legitimate self-interest)을 혼동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전적인 오해를 초래했다고 반박한다. 자본주의는 실제로 탐욕과 이기심을 다른 체제에서 보다

8)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Christian Economics에 대한 주요 기고자들: Jerry Falwell과 같은 신 근본주의자들(neo-fundamentalist); Fundamentalist Journal의 편집자들; Ronald Nash, John Jefferson Davis, Franky Schaeffer, Herbert Schlossberg 그리고 Calvin Beisner 등과 같은 더 젊은 신복음주의 저자들; Peter J. Hill 과 Brian Griffiths 같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theonomy" 또는 "기독교재건"을 옹호하는 이들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좀 더 잘 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사회적인 선으로 연결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적법한 이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발적인 경제 교환체제”라고 특징짓고, 사회주의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반해 강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폭력적인 경제 교환체제”라고 보는 것이다.⁹⁾

셋째로, 우파는 자본주의가 소수의 기업 엘리트들만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한 좌파의 비판에 대해 논박한다. 자본주의가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마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그것이 조금은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주장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자유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체제였으며, 공급측면에서는, 모든 계층의 경제적 진보에 대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자본주의는 부를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체제이지 흠치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빈곤의 원인이 되기는 커녕 현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빈곤의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경제를 정치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생산성에 장애를 주는 것은 빈곤을 물리치기보다는 일을 더욱 악화시키

주의 입장은 Villars 선언으로 표현되었다. 조상국,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만인을 위한 경제정의, 빌라스 성명, 옥스포드선언을 중심으로- 7회 기독교술발표회 자료집 참고.

- 9) Ronald Nash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간섭을 옹호하는 복음주의 좌파의 주장에 대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불행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것은 오직 의도(intention)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바른 경제 이론과 짝지어 지지 못하면 좋은 의도일지라도 자주 그 의도의 정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좌파의 경우 바른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Ronald Nash, *Poverty and Wealth: The Christian Debate over Capitalism*,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1986, p.9.

기만 한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좌파들의 경제정책이 오로지 재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복음주의 우파는 생산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파는 복지 국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생산의 효율성에 대한 장애를 최소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의 소득세제 (negative income tax)”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며, 사회보장제도도 진정한 보험제도와 같이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자본주의 : 복음적 중도파의 입장

자본주의에 대해 공격적인 좌파와 방어적인 우파와는 달리 많은 복음적 학자들이 시장메카니즘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남겨두고 있는 분명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다.¹⁰⁾

Christianity Today의 기고가 대부분은 자본주의는 실제 경제적 성취와 자유의 제공이라는 두 측면에서 사회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청지기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튼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Jim Halteman은 복음적 좌파와 우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시장자본주의와 기독교(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라는 연구저서에서 “시장자본주의는 재화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spirit)과 몸을 지탱시켜 주는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은 보증할 수 없다.”¹¹⁾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 이 중도파를 Gay는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 있다. 첫째, 복음주의 “주류(mainstream)” 라고 불리우는 Carl H. Henry와 Christianity Today의 최근 기고자들의 그룹; 둘째, 더 젊은 진보적 복음주의 경제학자들의 그룹; 셋째, 크리스찬 개혁파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자들의 그룹이다.

11) Halteman, *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Grand Rapids : Baker Book, 1988).

커다란 시장지향적 사회 가운데서 작은 공동체적 교회를 설립하여 기본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체제야말로 자본주의의 생산효율을 유지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소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Halteman은 재침례파의 “두 왕국”이라는 주제를 약간 변형해서 “두 왕국 접근법”을 제안한다. 세상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세상왕국에 거주하는 자이다. 여기서 세상왕국은 시장자본주의를 말한다. 시장자본주의에 살면서 교회적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왕국에 대한 모형(model)의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주류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상에 대한 침투자(infiltrator)의 전략을 가진 것에 비해, 두 왕국 접근법은 인간은 하나하나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세상에 침투하여 그것을 개혁하려다가 오히려 세속화되어 버린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은 기독교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기독교적 소비생활을 서로로 장려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제안한다.¹²⁾

한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았으며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교수인 경제학자 로버트 하우스바르트는 서구문명의 위기를 논증하여 미국의 복음주의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우스바르트는 문화적 퇴폐, 소외, 격증하는 갈등, 환경적인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서구 문명의 위기는 현대에 있어서 진보신앙(진보라는 우상)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 이것이 현대자본주의의 제도화에 연계되어 경제영역을 절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진보를 위해 경제성장과 기술이라는 독립적이고

p.14.

12) Halteman의 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는 조상국,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그 현실적 가능성”, 통합연구 제 4권 2호에 요약 소개되어 있음.

자율적인 힘 - 즉, 홀로 고립되고 그 자체로 충분하며 선택한다고 생각 되는 힘 - 위에 서 있는 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힘은 실로 윤리 및 사회적인 규범들과 연관되나, 이러한 규범은 경제적 기술적 힘의 실현과 '진보'의 증진을 방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관된다. 윤리적이며 사회정의의 추구를 하는 규범들은 진보의 힘에 의존하며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즉 규범들은 기술과 경제성장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¹³⁾

그러나 하우츠바르트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실존의 각 영역(sphere)에 있어서 규준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의 개현(disclosure)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경제성장의 우상화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다는 하우츠바르트의 사상을 정교화시킨 많은 젊은 신칼빈주의자들(neo-Calvinist)은 분명한 기독교적 정치경제이론이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즉, 신고전파, 통화주의, 케인지안, 사회주의 등 모두가 경제는 자율적이고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존재만 보아도 이것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¹⁵⁾

13) 하우츠바르트 지음, 김병연 정세열 옮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서구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 IVP, 1989, p119, 120

14) “개현은 인간의 삶이 진보에 종속되고 수종드는 것에서 벗어나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우츠바르트, 위의 책, p.265

15) Gay, op.cit., p.146 그러나 우파는 이에 반대한다. “제시된 경제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증적 기독교 경제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구별은 좋은 경제학인가 나쁜 경제학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성경으로부터 경제학의 체계를 연역해 낼 노력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국가의 부와 재산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은 크게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진다. 한쪽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패러다임을 가정하고 다른 한쪽은 현대화라는 패러다임을 가정하는 면에서 크게 구별되며 중도파는 양쪽 진영의 주장을 거의 반반씩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복음주의자의 양대 진영은 그들의 가정을 세상 이론가들에게서 보증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초월성(transcendence)과 현재성(immanence)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주의 좌파에 영향을 미친 마르크시즘이란 오늘 이 세상에 천국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현재화(immanentization)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theonomist”들도 구약성서의 재구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한 점에서는 현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도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 논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신학적 측면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경제적 문제에만 제한하여 보면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가 경제학의 정의다. 경제학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경제학이란 일차적으로 기술적(descriptive)인 학문이며 개인적인 경제 주체의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에 기초하여 예측적인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복음주의 좌파와 많은 중도파는 경제학을 기술적이고도 처방적(prescriptive)인 것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더 좋은 사회질서를 끌어 낼 수 있는

을 하지 않는다.” Ronald Nash, op.cit.p.12. 한편, 우파 중의 한 그룹인 theonomist 들은 구약의 율법체계에서 경제학의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해서 경제적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훨씬 더 강력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일치이다. 자본주의란 좌파가 주장하듯이 포괄적인 정치경제체제인가? 아니면 그것은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생산체제인가? 자본주의의 생산기능과 분배기능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입장의 차이를 가져온다.

셋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가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시장”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좌파가 주장하듯이 소수의 기업 엘리트들이 실제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경은 특정 경제체제를 옹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특정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회제도와 우리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고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니이버의 다음 말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와 문명(자본주의)의 문제는 결코 새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의 혼란은 언제나 있어 왔으며 전 기독교 세대를 통하여 하나의 영속적인 문제로 되어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반복되는 고투는 한 번도 단일한 기독교적 해답을 가져온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하 각 장에서 논술하려는 내용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문화(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전형적인 해답들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혼히는 충돌되는 기독교 그룹들의 상호이해에 공헌하려는 것이다. 이 노력의 배후에 놓여 있는 믿음, 곧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어서 역사와 생활의 전체에 해답을 두고 있다는 것과, 그 해답의 양식은

그의 모든 해석자들의 지혜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부분적인 통찰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충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이다.”¹⁶⁾

이제까지 우리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논쟁을 살펴 보았다. 이제 우리 나라의 문헌을 정리해서 살펴 보는 것이 다음 과제일 것이다.

16) 니이버, 위의 책, pp.9~10. () 안의 “자본주의”는 필자가 임의로 삽입해 본 것임.

참고 문헌

- 리처드 니이버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58.
- 조상국,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 만인을 위한 경제정의, 빌라스 성명, 옥스포드선언을 중심으로 - 7회 기독교학술평표회 자료집.
- ,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그 현실적 가능성”, 통합연구 제 4권 2호.
- 하우츠바르트지음, 김병연 정세열 옮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서구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 IVP, 1989.
- Gay, Craig M.,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Whom? : The Recent Evangelical Debate Over Capitalis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91.
- Halteman, *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 (Grand Rapids : Baker Book, 1988)
- Hill, Peter J. “An Analysis of the Market Economy: Strengths, Weakness, and the Future,” *Transformation*, June- September/ October-December 1987, pp.40~47.
- Ronald Nash, *Poverty and Wealth: The Christian Debate over Capitalism*,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1986.
- Walterstoff, Nicholas P. “The Bible and Economics: the Hermeneutical Issues,” *Transformation*, June- September/ October-December 1987, pp.11~19.